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정세인식 변화

이상근 연구위원
sang16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8기 4차 전원회의 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 III. 북한의 정세인식 변화와 대외정책에의 영향
- IV.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문 초록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은 급속한 핵능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로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전제나 마찬가지로 핵·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2018년 이전까지의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장기화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거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 세계적으로 서방 대 중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오랫동안 미국과 맞서더라도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등이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확실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환경을 이용하여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핵전력 발전에 맞서 독자적 방어체계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도 계속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간 대립구도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심어: 북한 핵개발,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 북중러 밀착, 한미일 협력, 신냉전

목차

I. 문제 제기

II. 8기 4차 전원회의 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1.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
2. 종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

III. 북한의 정세인식 변화와 대외정책에의 영향

1. 한미와의 관계개선 가능성 회의
2. 신냉전구도가 도래했다는 인식
3. 대내적 안정 유지에 대한 자신감

IV.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1.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
2.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I. 문제 제기

- 북한은 2022년 초부터 신무기 시험을 거듭하고 3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였으며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2021년까지와는 다른 대외행동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기반이 된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핵능력 강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1년 6월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표명된 미국과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 철회되고¹⁾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²⁾
- 북한은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남·대외정책의 대략적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 복잡한 대외정세로 인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외정책 전환 여부를 확정하려 한 것으로 보임
- 3월 24일에 단행된 ICBM 시험발사와 4월 25일의 핵무력 급속 강화발전 입장 언급은 북한의 새로운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음
- 본 전략보고는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에 취해 온 대외행동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아가 북한의 대내외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새로운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려 함

1) 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6월 18일, p. 1.

2) 정치보도반,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 힘있게 과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3월 25일, p. 4.

II. 8기 4차 전원회의 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1.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

-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의 북한 대외정책 방향은 △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와 △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로 요약 가능
 -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각종 핵 운반수단 시험,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핵무력 급속 강화·발전 입장 표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 및 대미 비난 등 북한이 취한 대외 행동들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
-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8기 4차 전원회의 이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 및 관계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일 노동당 제8차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³⁾
 - 2021년 6월 8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⁴⁾
- 2021년 가을부터 강력한 신무기들을 테스트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은 유지
-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정책의 대략적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3) 정치정보단,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p. 6.

4) 정치정보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3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6월 18일, p. 1.

- 북한은 이례적으로 북미관계를 관할하는 리선권 외무상, 북중관계를 관할하는 김성남 국제부장, 남북관계를 관할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대남 및 대외분과 토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공개
- 그럼에도 전원회의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을 뿐,⁵⁾ 어떤 문제들과 어떤 전술적 방향들이 제시되었는지는 비공개
- 북한이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복잡한 대외정세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을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
 - 남한의 대통령 선거,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 및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제고 등에 따라 대외환경의 유동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을 반영
- 2022년에 들어 북한이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
 - 북한은 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연이어 발사했으며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1월 19일 정치국회의에서 핵·ICBM 모라토리엄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북한은 3월 24일 결국 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
-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핵·ICBM 모라토리엄이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전제나 마찬가지로였다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2017년까지의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
 -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⁶⁾

5) 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6) 이상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변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2018-16 (2018년 12월), p. 5, <http://www.inss.re.kr/common/viewer.do?atchFileId=F77555&fileSn=0>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라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더이상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기하고서라도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시현
 - 향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고 핵군축 차원에서의 협상에만 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4월 2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을 통해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 표명⁷⁾
 -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핵능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 발언을 통해서도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했음을 확인 가능
- 2017년까지의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 추진이 2018년 봄 핵포기 가능성 시사를 통한 전격적 국면전환으로 이어졌던 데 반해 북한이 2022년에 이 전략으로 회귀한 것은 이른바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 핵을 가진 강국으로 인정받고 이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북한이 2018년과 같은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은 낮음⁸⁾

2.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

-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는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
-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장기화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김정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22년 4월 26일.

8) 심동준, “조선신보 “北, 국가핵무력 완성…전략국가,” 뉴시스, 2022년 5월 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1_0001854612 (검색일: 2022년 5월 12일).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시해 왔고 2018년 3월 북중정상회담 이래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 및 강화해 왔으나 근래에 보여준 중러와의 밀착 노력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2021년까지는 중러와의 관계 강화를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 내지 보완책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2년부터는 핵·ICBM 모라토리엄 철폐 위협 및 실행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중러와의 관계 강화가 수단이나 보완책이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체제의 생존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
-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국경봉쇄를 실시한 지 24개월 만인 2022년 1월 16일부터 열차를 통한 북중 간 화물운송을 재개했으며 남포항을 통한 북중 간 해상운송도 증가⁹⁾
 - 2022년 1~2월 북중 간 교역액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0.7배 증가했으며 2022년 3월 교역액도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2배 증가¹⁰⁾
- 4월 28일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무역박람회도 7년 만에 개최하여 중국과 북한의 회사들이 생산한 경공업, 농업, 건재, 수산, 의학 분야 상품자료들을 화상으로 전시¹¹⁾

9) “중국 ‘북중철도화물 운송 재개…정상적 무역왕래 지원,’” 연합뉴스, 2022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view/MYH20220117020700038> (검색일: 2022년 4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단동시 봉쇄와 관련하여 4월 말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상황이 진정되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

10) 박종국, “북중 3월 교역액 작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 연합뉴스, 2022년 4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8146500097>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11) 박수윤, “북중, 7년만에 무역전람회 개최…코트라 ‘교역재개 가시적 조치,’” 연합뉴스, 2022년 4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026800504>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2022년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인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무력시위를 중단
 - 동계올림픽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 북한은 봉쇄형 방역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에도 불참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북중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
 - 미국 등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가운데 북한은 개막식이 열리는 2월 4일 개막을 축하하는 동시에 조중관계를 “불패의 전략적 관계”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축전을 보냄¹²⁾
 - 폐막 이틀 뒤인 2월 22일에는 북한과 중국이 모두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두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¹³⁾
- 3월 24일 ICBM을 발사한 직후에도 4년 전인 2018년 3월 25~28일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을 되새기며 북중협력을 강조
 -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연회, 오찬, 기념 사진 촬영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다섯 차례에 걸친 두 정상 방중·방북으로 북한과 중국 간 “형제적 우정과 단결”이 공고해졌다고 주장¹⁴⁾
 - 조선중앙TV는 3월 25일 저녁에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을 다룬 기록영화를 재방영¹⁵⁾
-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러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옴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주권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유보하는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음

12)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4일.

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동지에게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22일. 구두친서에는 성공적 올림픽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여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로골적인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을 짓부시고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나가고 있다”는 내용 포함.

14) “새시대 조중친선관계발전의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3월 25일.

15) 김경윤, “김정은 4년 전 첫 방중 연일 되새기는 북한…북중친선 강조,” 연합뉴스, 2022년 3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6036600504>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된 뒤 북한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다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등 서방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옹호¹⁶⁾
-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사태 역시 로씨야의 합법적인 안전상요구를 무시하고 세계패권과 군사적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지지 입장을 고수¹⁷⁾
-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채 러시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
 - 중국의 경우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도 각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¹⁸⁾
- 3월 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될 때에도 북한은 반대표를 던짐¹⁹⁾
 -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북한은 중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음²⁰⁾
-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하할 정도로 미국 대 러시아의 대립구도에서 러시아에 편승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함
 - 조선중앙통신은 4월 9일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을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는 이유로 “미국 집권자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노망한 늙은이의 폰수 없는 객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비난²¹⁾

16) “나토는 결코 ‘방위동맹’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2월 13일.

17) 리지성,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2월 26일.

18) 이상현·김진방, “[우크라 침공] 中 왕이 “각국 주권 존중…러의 안보우려도 해소돼야”(종합),” 연합뉴스, 2022년 2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6009451071> (검색일: 2022년 4월 16일).

19) 박현영, “유엔 141개국 “러 즉각 철군” 결의…러·북한 등 5개국만 반대,”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52#home> (검색일: 2022년 3월 5일).

20) 강건택, “부차 학살’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93개국 찬성(종합2보),” 연합뉴스, 2022-04-08,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01952072> (검색일: 2022년 5월 12일).

21) 김명철, “최후의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9일.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러시아와의 친선 강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주장을 전개
 - “조로 친선관계는 오늘 총비서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두 나라가 “내외의 온갖 도전과 시련, 방해 책동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국제무대에서의 호상 지지와 성원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²²⁾

III. 북한의 정세인식 변화와 대외정책에의 영향

1. 한미와의 관계개선 가능성 회의

- 북한이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배경에는 미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거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선비핵화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불가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며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미미하기 때문
-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였으나 남북한은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못했고 북미협상도 재개되지 못함
 -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간 1월 중에도 남북한 간 비밀접촉이 있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북미 간에도 대화의 조건을 들어보기 위한 실무급 비밀접촉이 있었으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²³⁾

22) 리경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 『로동신문』, 2022년 4월 25일.

23) 신진우, “[단독]北 도발 와중에 남북 접촉… 정의용 “종전선언 긍정 반응 기대”, 『동아일보』, 2022년 1월 22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122/111369647/1>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 북한은 남한, 미국과의 접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3월 24일 ICBM을 시험발사
 - 2021년 말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정해지고 1월 19일 정치국회의에서 재검토 의지가 표명되었던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골자로 하는 대외정책 변화가 확정된 셈
-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순에 급속한 핵개발 정책을 공언하고 핵 선제사용론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 입장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선제타격, 북한 주적론,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던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²⁴⁾

2. 신냉전구도가 도래했다는 인식

- 북한은 세계적으로 서방 대 중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력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신냉전구도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표출
 - “보다 근본적인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언급²⁵⁾

24) Michelle Ye Hee Lee, “South Korean President-elect Yoon Suk-yeol Unveils Foreign Policy Goals,” *The Washington Post*, April 14,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04/14/south-korea-president-interview/> (accessed: April 30, 2022); 김효정, “尹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정세 엄중, 동맹 결속력 강화”(종합), “연합뉴스, 2022년 4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062651001>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25) 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 북한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힘입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더라도 중러와 밀착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함
 -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간에 갈등이 벌어진 데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 특히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미국 등에 의한 제재 강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
- 북한은 3월에야 새로운 대외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IC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 속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인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도 격화된 상황을 주목
- 중러 대 서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러의 편을 확실히 들고 있으므로 핵·ICBM 모라토리엄이 깨져도 중러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 부과를 저지할 것이라는 판단
 -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유류(petroleum) 공급량 축소에 반대함으로써 유엔 안보리결의 2397호에 명시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계산을 마쳤던 것으로 보임
- 실제로 3월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다수의 비상임이사국들이 트리거 조항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를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려는 미국 등의 시도마저 중러가 반대하여 무산²⁶⁾
-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 일본의 지속적 강조와 한국의 호응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한 것으로 보임

26) 김재중,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언론성명 채택 무산…중국·러시아 반대,” 『경향신문』, 2022년 3월 27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3271031001> (검색일: 2022년 4월 22일).

- 한미일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협력의 주요 내용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압박도 포함
 -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간 밀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한미일은 2022년 2월 12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와 관련된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²⁷⁾
 - 공동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은 물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 등 대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은 문구들을 다수 포함
 -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도 포함

-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했으며 윤 당선인도 이에 대한 공감을 표명²⁸⁾
 - 윤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해 더 큰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윤 당선인도 공감을 표명

27)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외교부, 2022년 2월 13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81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28) 박태인·성지원, “尹과 첫 통화서 일본 꺼낸 바이든…“北위협 한미일이 맞서야”, 『중앙일보』, 2022년 3월 1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405#home>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1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²⁹⁾
 - 기시다 총리는 4월 26일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군사적 확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국제상황에서 일한·일미한의 전략적인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고 강조³⁰⁾
- 이와 같은 상황 전개가 북한이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구도의 강화 및 장기화를 예상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한미일의 압박에 맞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임

3. 대내적 안정 유지에 대한 자신감

- 북한은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의 회귀, 중러와의 밀착과 같은 대외정책 추진으로 오랫동안 미국 등과 맞서게 되더라도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하며 대북제재가 더 강화되지만 않는다면 국내적 정치·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대외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
 - 중러의 도움으로 ICBM 발사 등으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국내적 안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각오한 강경한 대외정책 추진은 국내에서의 ‘버티기’가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경제난 지속, 봉쇄형 방역 장기화 등으로 내부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북중국경 봉쇄 완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2021년도 식량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임

29) 박성진·김동현, “尹당선인, 기시다 日총리 통화…“한미일 한반도 공조 강화”(종합2보),” 연합뉴스, 2022년 3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74851073>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30) 김예진, “기시다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이 정도로 필요한 때 없어,” 뉴시스, 2022년 4월 26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315&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던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의 성과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도 국내적 안정 유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
 -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무리한 성장을 추구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과는 달리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규정됨
 -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에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기보다 생산목표를 다소 낮추고 안정적 경제운영에 방점을 둬으로써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의 내구력 약화를 방지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올해의 경우 경제발전의 주안점을 농업 및 건설분야의 성장에 두고 더욱 수세적, 안정적 경제 운영을 시도
 - 2021년과 같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의 발전을 피하기보다 대북 제재하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업과 건설업 분야의 성장에 힘을 쏟고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적 내구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면도 있으나 평양 1만세대 주택 건설 등 연간 목표 달성이 가능하여 정치적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민생에 직결된 주택부족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
- 농촌혁명을 부르짖으며 식량생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주민의 지지와 대내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 자연재해나 방역 실패 등으로 인해 심각한 대내위기에 봉착할 경우에는 중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국내적 안정 유지를 자신하는 이유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론
 - 2022년 들어 재개된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등이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보임

IV.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1.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

- 코로나19 감염자 대거 발생으로 대내적 안정 유지 전망에 적신호가 켜지기는 했으나 북한은 현재와 같은 대외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음
- 세계적 차원에서의 서방 대 중러 대립,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순방 이후 중러에 맞서는 한미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 중러의 확실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환경을 이용하여 미사일 발사 등 신무기 시험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
 -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되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할 것이라는 계산
- 이미 발표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나 군사기술적 필요성 면에서도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
 -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³¹⁾
 -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해야 할 기술적 필요성도 큼³²⁾
- 위와 같은 이유로 핵실험을 2회 이상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31) 김정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32) 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참관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7일.

- 한편 북한의 핵실험, IC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는 물론 중국과 서방 간 마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지속도 미국과 서방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러 간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되면 역으로 북중러도 더욱 밀착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임
 -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현실화하고 일본 내에서 미일 핵공유 여론이 고조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이 사드(THAAD)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려 할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초래
- 핵실험 등 급속한 핵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강화되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와 유사한 진영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
 - 진영 간 대립구도 형성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게 되면 양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도 커진다는 판단
- 미국 등의 대화제의에 불응하면서 핵능력 증강을 계속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미일의 반발을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국내적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전망
 -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공수한 바 있음
- 봄철 가뭄, 장마철 수해 등으로 인해 올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에도 중국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
 -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남한이나 서방의 지원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

2.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 북한의 급격한 핵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취해지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신뢰성 제고 조치를 지속
 - 북한이 핵실험 등 무력시위를 강화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적인 한반도 순환 배치도 추진할 필요
-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미국과의 핵공유 등은 미국 정·관계 주류세력의 반대로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유의
 - 이를 추진할 경우 NPT체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한미동맹의 토대가 흔들려 한국의 안보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 독자 핵무장이 실현될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모든 지역국가들이 서로의 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도 유의
- 군사적 대비 일변도의 대응은 안보딜레마를 발생시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핵문제 외교적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에게 남북대화 재개는 물론 북미대화도 촉구
- 안보 외 이슈들에 관한 협력 의지도 지속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계기가 마련될 경우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을 재개
 - 당장은 어렵겠으나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사정이 심각해질 경우 성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남북협력을 도모
-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막아내거나 늦추기 위한 대중·대러 외교도 끈질기게 지속할 필요
 - 러시아와 중국도 현재의 국제정세상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있을 뿐 이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
 -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 내지 휴전 등 국제정세 변화를 대비한 대러·대중 접근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핵문제 이외의 이슈들을 둘러싼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동향을 지켜보며 동북아지역 차원의 다자 간 보건협력 등을 위한 중러와의 협의를 제안

참고문헌

- 강건택. “부차 확실’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93개국 찬성(종합2보).” 연합뉴스, 2022년 4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01952072> (검색일: 2022년 5월 12일).
- 김경윤. “김정은 4년 전 첫 방중 연일 되새기는 북한…북중친선 강조.” 연합뉴스, 2022년 3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6036600504>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 김명철. “최후의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2년 4월 9일.
- 김예진. “기시다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이 정도로 필요한 때 없어.” 뉴시스, 2022년 4월 26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8315&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김재중.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언론성명 채택 무산…중국·러시아 반대.” 『경향신문』, 2022년 3월 27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3271031001> (검색일: 2022년 4월 22일).
- 김정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22년 4월 26일.
- 김효정. “尹당선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정세 엄중, 동맹 결속력 강화”(종합).” 연합뉴스, 2022년 4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062651001>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리경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 『로동신문』, 2022년 4월 25일.
- 리지성.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2월 26일.
- 박성진·김동현. “尹당선인, 기시다 日총리 통화…“한미일 한반도 공조 강화”(종합2보).” 연합뉴스, 2022년 3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74851073>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박수윤. “북중, 7년만에 무역전람회 개최…코트라 “교역재개 가시적 조치.” 연합뉴스, 2022년 4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026800504>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박종국. “북중 3월 교역액 작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 연합뉴스, 2022년 4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8146500097>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박태인·성지원. “尹과 첫 통화서 일본 꺼낸 바이든…“北위협 한미일이 맞서야.” 『중앙일보』, 2022년 3월 1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405#home>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박현영. “유엔 141개국 “러 즉각 철군” 결의…러·북한 등 5개국만 반대.”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552#home> (검색일: 2022년 3월 5일).
- 신진우. “[단독]北 도발 와중에 남북 접촉… 정의용 “중전선언 긍정 반응 기대.” 『동아일보』, 2022년 1월 22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122/111369647/1>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 심동준. “조선신보 “北, 국가핵무력 완성…전략국가.” 뉴시스, 2022년 5월 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1_0001854612 (검색일: 2022년 5월 12일).
- 이상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변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2018-16 (2018년 12월), p. 5, <http://www.inss.re.kr/common/viewer.do?atchFileId=F77555&fileSn=0>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 이상현·김진방. “[우크라 침공] 中 왕이 “각국 주권 존중…러의 안보우려도 해소돼야”(종합).” 연합뉴스, 2022년 2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6009451071> (검색일: 2022년 4월 16일).
- 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 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7일.
- 정치보도반.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 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3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6월 18일.
- 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 정치보도반.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 힘있게 과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3월 25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22일.
- “나토는 결코 ‘방위동맹’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2월 13일.
- “새시대 조중친선관계발전의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사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 2022년 3월 2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4일.

“중국 “북중철도화물 운송 재개…정상적 무역왕래 지원,” 연합뉴스, 2022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view/MYH20220117020700038> (검색일: 2022년 4월 19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외교부, 2022년 2월 13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81 (검색일: 2022년 4월 30일).

Lee, Michelle Ye Hee. “South Korean President-elect Yoon Suk-yeol Unveils Foreign Policy Goals.” *The Washington Post*, April 14,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04/14/south-korea-president-interview/> (accessed: April 30, 2022).

Abstract

Change in North Korea's External Policy and Perception of Circumstances after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angkeu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fter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North Korea's new external policy focuses on expanding its security capability through a rapid buildup of nuclear capability and developing clos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As North Korea withdrew the moratorium on testing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was a premise of the North Korea-US Singapore Agreement, the country has abandoned its efforts to improv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turned to the uncompromising nuclear weapon development strategy it had implemented until the end of 2017. Meanwhile North Korea is consolidating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to secure survival in the face of protracted conflict with the US. A shift in North Korea's external policy may have been attributed to the following factors: it's decision that the possibility of security or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through improve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has nearly disappeared;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West and China and Russia;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as one block and North Korea,

Abstract

China, and Russia as the other; and its belief that it can maintain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in the face of a longstanding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is likely to strengthen nuclear capability and continue seeking close ties with China and Russia as it expects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US, and Japan and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o last long. Capitalizing o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can secure assistance from China and Russia, North Korea is highly likely to resume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military response by bolstering its independent defense system against North Korea's expansion of nuclear capability, and securing reaffirmation of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Simultaneously, it is also necessary to express South Korea's intention to solve problems with the North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hich would be instrumental in preventing the revival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ower blocs in Northeast Asia.

Keyword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uncompromising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moratorium on nuclear weapons and ICBM tests, close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US, and Japan, the New Cold War, bloc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SS

전략보고

May 2022. No. 16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